

싱가포르 화문시가(華文詩歌)의 문화적 정체성 연구

朴南用(韓國外國語大學校 BK21新韓中文化戰略事業團 研究教授,
parknamyong@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싱가포르 화문시가의 전개와 발전
3. 향수의식과 유랑의식
4. 싱가포르(인)의 본토성과 자기정체성
5. 나오며

1. 들어가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의회가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 분리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된 도시형 국가이다. 싱가포르 화인 사회의 역사를 볼 때 화인사회의 자치통치(1819-1876), 영국의 직속통치(1877-1945), 싱가포르의 분리와 독립(1946년 이후~1965~)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 땅의 일부로써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하며 동양 사회와는 다른 서구적 정치·경제·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한국, 대만, 홍콩 등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써 급속한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적 가치, 즉 유교 자본주의에서 그 원동력을 찾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다문화, 다종족, 다언어적인 국가 사회로써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1980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인구 중 “화인이 76.9%, 말레이인 14.6% 인도인 6.4%, 기타 종족이 2.1%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¹⁾, 1998년 기준으로 “화인이 77.0%, 말레이 14.0%, 인도인 7.6% 나머지 집단이 1.4%를 점유하고 있다.”²⁾ 이중 1993년 이전의 “싱가포르 화인들은 40%가 복건인, 23%는 조주인, 18%는 광동인, 9%는 객가인, 7%는 해남인 출신이고 나머지 3%는 기타 방언집단 출신이다.”³⁾ 이처럼 싱가포르 사회에서 화인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들 중 대부분은 중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내려온 화교 출신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엄연히 화인, 말레이인, 인도인, 기타 종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종족,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제1언어로 영어, 제2언어로 중국어, 그외로 말레이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언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사회와 문학을 조명할 때는 위와 같이 국가, 민족, 종족, 언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근 2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싱가포르는 중국 화인

1) 楊松年, 「海角那朵怒放的花-新加坡華文文學的過去與現況」, 柏楊 主編, 『新加坡共和國華文文學選集』(史料篇), 臺北: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2, 1쪽.
2) 박사명 외 저,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전통과 현대, 2000, 352쪽.
3) 박사명 외 저, 같은 책, 363-364쪽.

의 이민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영국의 식민통치를 거쳐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을 하기 까지 식민 통치에 대한 기억과 분리 독립을 위한 투쟁이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의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의 국민당 사이에서 서로 세력을 넓혀나가려고 경쟁을 하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종족인 화교들마저 중국본토를 차지한 공산 세력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 세력의 경쟁 표적이 되었다”¹⁾고 한다. 게다가 오늘날 다문화적이고 다원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기까지 다양한 근대적 경험을 겪으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회와 문학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화인사회는 “중화라는 씨앗이 현지사회의 문화와 혼종적으로 교배되어 맺은 열매”²⁾라고 할 수 있기에 해외 화인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의 화인문학(華人文學) 또는 화문문학(華文文學)을 고찰한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문학과의 관계로 중국문학의 연장으로 보아 중국문학을 하나의 ‘모체문화’적 특성으로 고찰할 수도 있으며, 중국문학에서 점차 멀어지는 가운데 서구문학의 영향 속에서 싱가포르 본토의 새로운 문학을 지향하는 본토문화적 특성으로 고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화인문학 또는 화문문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종족에 대한 정체성과 다문화적이고 다원화된 문화적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갖지 않을 수 없다.³⁾ 따라서 싱가포르 화인들에 대한 명칭이 “영국 식민통치 시절의 ‘화교’에서 ‘싱가포르 중국인’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싱가포르인’이라는 명칭”⁴⁾으로 불리어지기까지 중국 화인들이 싱가포르 사회에서 자신들의 종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왔는지 화문시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 작가와 작품은 주로 싱가포르 화문문학에서 가장 중시되며 자주 인용되고 있는 작가와 시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주로 華人詩歌 감상사전과 시선집에서 선별 인용하였으며, 기타 시인의 작품집에서 발췌 인용하였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2. 싱가포르 華文詩歌의 전개와 발전

싱가포르 화문시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華人文學과 華文文學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먼저 화인문학이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인 동남아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 작가와 작품 세계를 말하며, 화문문학이란 무엇보다 중국어를 언어적 매개로 하여 다양한 문학활동을 하는 작가와 작품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의 화문문학은 馬華文學에서 비롯된 것으로 雲里風의 정의처럼 “말레이시아 지역의 화문문학을 가리키며, 그 내용적 본질은 말레이시아 지역을 주체로 해야만 하며, 본 지역 사람들의 현실생활 현상

1) 김성진 저, 『리관유-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건설을 위해』, 서울·살림, 2007, 6쪽.

2) 지세화, 「중국의 ‘華文文學’에 대한 연구동향과 인식태도 고찰-화문문학 연구성과의 검토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제46집, 2008.12, 162쪽.

3) 중국의 ‘화문문학’에 대한 주요 연구동향은 지세화의 논문 「중국의 ‘華文文學’에 대한 연구동향과 인식태도 고찰-화문문학 연구성과의 검토를 중심으로」(『중국학연구』 제46집, 2008.12)를 참고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동남아의 화문문학연구는 ‘異族書寫’에 집중되어 현지 주요종족과 주변종족 간의 서사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성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지의 화문문학과 현지 소수민족 서사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결합구조, 예술성을 고찰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 분야로는 현지 화문문학을 매개로 한 대륙의 중국문학과 동남아 각지 문학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4) 박사명 외 저, 같은 책, 357쪽.

을 반영해야 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의 정신, 사상, 감정과 바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馬華文學은 싱가포르 화문문학과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으로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화인문학에는 종족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며, 화문문학은 종족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면서도 언어적 수단이 무엇인지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화문시가(華文詩歌)의 개념과 특성이란 吳奔星이 『華夏時報』 총제97기에 실린 「華文詩歌的特色與地位」에서 말한 것처럼, “개념적으로 화문시이란 화문(華文), 즉 중국어(漢語)로 창작하는 시가를 가리키며, 초시공적이며 민족화, 현대화, 그리고 다양화란 특성을 가지고 있다”²⁾고 하였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화문시가의 큰 특징은 민족화로 중화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시가의 내용상 현대적인 것에 착안하며 풍격과 문체상에서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현대화된 사회생활을 묘사하면서도 화인들이 처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吳開晉은 「東方智慧的延伸」이란 글에서 당대 화문시가는 대륙과 대만 외에도 홍콩, 마카오, 기타 해외를 중심으로 화문시가 쓰여지며, “동방 지혜의 확대와 동방시학의 확장”이 하나의 발전경향을 이루고 있다고 한 바 있다고 하였다.³⁾

싱가포르 화문학문은 1919년부터 1980년까지 놓고 볼 때,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사상내용이나 작가의 의식이나 감정상으로 보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楊松年의 구분에 따르면 세 시기를 첫째는 戰前(1919-1942)의 시기, 두 번째는 전후부터 싱가포르 독립 전까지(1945-1965)의 시기, 세 번째는 싱가포르 독립 후부터 지금까지(1965-1980~)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

이 시기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시기는 “중국의 5·4 문학혁명의 영향 아래 탄생하고 발전”⁵⁾한 시기부터 일본이 싱가포르를 침략하는 戰前까지의 시기이다. 馬華新詩의 탄생은 산문보다도 비교적 늦은데, 1919년 12월 『新國民日報』(1919년 창간)의 문학부간 『新國民雜誌』에 蘇厚祿의 「懶工的懺悔」이 나타났고, 1920년에 또 한 편의 四季詩를 발표하였다.⁶⁾ 그러나 진정으로 첫 번째 신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嘯崖가 1920년 2월 18일 『新國民雜誌』에 처음 싱가포르 화문 신문학 작품 「原來學生」이 백화를 이용하여 창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던보이인가? 아니다, /아니면 군대가는 사람인가? 아니다, /아니면 사회의 인간쓰레기인가? 또한 아니다. /아아, 원래는 이곳의 어느 학당의 학생이었구나!”⁷⁾라고 하였다. 시 자체가 백화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원래는 학생이었구나’라며 학생들의 떠돌이적 습성을 풍자하는 백화시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이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교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 것을 그리워하는 의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南洋의 생활과 자연경물에 대해 묘사하며 南洋文藝의 철탐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두 번째는 전후 초기부터 싱가포르 독립 전까지 주로 중국에서 남하한 교민의식이 풍부한 문인들과 현지의 젊은 작가들과 아주 큰 충돌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1947년 본지에서 출생

1) 雲里風, 『雲里風文集』(鷺江出版社, 1995년 4월 제1판), 제355쪽. 公仲 編著, 『世界華文文學概要』,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0, 477쪽 재인용.
 2) 小莫, 「華文詩歌的概念與特性」, 『詩刊』, 1997 1기, 46쪽.
 3) 姚亮, 「當代華文詩歌的一種發展趨向」, 『詩刊』, 1998 6기, 49쪽.
 4) 楊松年, 「海角那朵怒放的花-新加坡華文文學的過去與現況」, 같은 책, 2쪽.
 5) 陳賢茂, 「新加坡華文詩壇的歷史回顧」, 『臺灣香港與海外華文文學論文選』, 福州:海峽文藝出版社, 1988, 340쪽.
 6) 公仲 編著, 『世界華文文學概要』,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0, 480쪽.
 7) 那是時髦子嗎? 不是, /還是當兵的嗎? 不是, /還是社會上的敗類嗎? 也不是. /呵呵, 原來是此地某某學堂的學生!

한 젊은 작가들에 의해 ‘馬華文藝의 독특성’ 구호가 제기되었으며, 중국을 제재로 하는 작품을 ‘僑民文藝’ 또는 ‘중국문예의 해외판’이라고 하며 중국으로 간 작가를 ‘교민작가’나 심지어는 ‘도망작가’라고 비난하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시기이다. 아울러 1956년 사이에는 애국주의 문학 또는 애국주의 대중문학 구호가 제기되어 본토작품에는 본토의식과 색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점차 “중국문학의 궤도에서 벗어나 독립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¹⁾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많은 젊은 시인들이 시단에 나타났으며, 그들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로, 杜紅, 鍾祺, 周榮, 范北羚, 杜誠, 原甸, 泡蒂, 槐華, 李販魚, 嚴思, 山河, 苗芒, 蔡欣 등의 시인이 있다. 이중에서 原甸과 蔡欣의 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을 /말 한 필처럼 /나무 아래 매달아 두는 것이다 /밤새
소란피우며 나를 기다리기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풀어준다 -- (原甸²⁾,
「時間的遐想」전문³⁾

빌딩은 아주 창백하지만 /도시는 /더 큰 냉혈동물 //그대는 돌기둥에 항상 기대
어 /피로한 인물상을 /항상 빛는다 //집도 없는데 /집은 사람을 속이는 것 /꿈
밖의 명사 /유랑자에게는 /온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있다 //꿈이 있다면 밤이
여 오라 /베개라는 돌계단은 맑고 차가운데 /그리하여 꿈을 꾸며 /그리하여 눈
과 얼굴 앞에도 /끝없는 길이 펼쳐진다 --(蔡欣⁴⁾, 「流浪者」전문, 1970년⁵⁾

原甸의 작품 「時間的遐想」은 시인의 시간에 대한 사색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저명한 시론가 李元洛은 『詩美學』에서 미적 상상을 면류관에 비유한다면 “참신성, 창조성, 기이성은 면류관을 장식하는 세 개의 보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⁶⁾ 비교적 간단한 시어로써 시간을 말에 비유하며 시적 정취를 풍부하게 있다. 말을 매었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시인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인생의 깊은 뜻을 간단명료하게 형상화시킴으로써 독특한 시적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蔡欣의 「流浪者」라는 작품은 여성 시인의 시선을 통해 삭막한 도시의 일상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도시 속의 빌딩이란 문명세계를 ‘냉혈동물’에 비유하며 수많은 ‘피로한 인물상’을

1) 陳賢茂, 「新加坡華文詩壇的歷史回顧」, 같은 책, 340쪽.
2) 原甸은 當代 시인이자 화문문학 연구가이다. 원명은 林佑璋. 1940년 上海에서 태어났으며 原籍은 福建 閩候縣이다. 일찍이 싱가포르 『聯合早報』 편집을 맡은 바 있다. 1962년 처녀시집 『青春的哭泣』을 출판하였으며, 시집안에는 장편 낭송시 『我們的家鄉是座萬寶山』가 교재로 편찬되어 말레이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1965년 홍콩으로 이주해 많은 저작을 출판하였다. 『香港風景線』 『香港窓沿』 『掌聲集』 등이 출판되었다.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書海出版社, 1993, 1180쪽.
3) 最好能把時間 /象一匹鞍馬 /綁在那棵樹下 /待我胡鬧了一個夜晚 /再回來 /解開它 -- 原甸, 「時間的遐想」
4) 蔡欣은 원명이 蔡向榮, 기타 필명으로 怡然, 宇文軒 등이 있다. 祖籍은 중국 廣東省 澄海縣이며, 1947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났다. 싱가포르 師資訓練學院을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출판된 저작으로는 『曇雨』 『貝殼』 (이상 시집), 『椰花集』 (산문집) 등이 있다.
5) “大廈很蒼白 /而都市 /是更大的冷血動物 //你恒靠於石柱 /恒塑一具 /疲憊的人像 //沒有家 /家是騙人的 /夢境外的名詞 /流浪者 /有滿天星光 //有夢 夜來 /枕一石級清冷 /於是入夢 /於是在眼臉前 /又展開無盡的路” - 蔡欣, 「流浪者」전문
6)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書海出版社, 1993, 1180쪽.

빛지만 ‘유량자’에게는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적 주인공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눈과 얼굴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끝없는 길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는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 독립 이후의 시기로, 싱가포르 화문문학이 새롭게 발전하며 단행본과 잡지가 대량으로 발행되었고 싱가포르작가협회, 싱가포르 寫作人協會와 五月詩社, 싱가포르 문예연구회 등의 문학단체가 있었다. 바로 독립 전인 “60년대 초기에는 서방의 현대주의, 특히 대만의 현대시의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에도 현대시를 쓰는 청년 시인들이 나타났으며, 싱가포르 화문시단에 자못 오래 지속된 ‘사실과 현대’라는 논쟁”이 나타났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시인들로는 “莫邪, 牧羚奴, 完顏籍, 英培安, 零點零, 賀蘭寧, 流川, 文愷, 南子” 등이 대표적이다.¹⁾ 아울러 70년대초에는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단상에는 사물 속에서 감흥을 일으키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토로하는 작품들이 등장하였는데, 梁鉞의 「茶如是說」와 郭永秀의 「茶的故事」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1984년부터는 영어와 화어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모든 학교가 영어를 제1언어로 삼았고, 화어는 제2언어로 떨어져 내리면서 많은 시인들은 상실감으로 가득찼다. 이 중에서 여성 시인인 莫邪의 대표시 「彼岸的婦人」 1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안의 부인이여 /그대의 이름은 아내라 부른다 /그대의 눈은 /수분을 머금고,
 깨끗하다 /그대의 두 손에는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대의 감미로운 혀의 따뜻한
 입술로 /그대의 매우 엄중한 / 매우 엄중한 죄를 입맞춤하여 없애준다 /
 집으로 돌아가는 그를 불러, 그를 부른다 /머나먼 집으로 돌아가는. 하지마라 /
 더 이상 만들지 말라 피의 /비극을 //그대의 이름은 어머니라 부른다 /피안의
 부인이여 /어머니의 사랑을 이별하여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죽으러 가는 것을
 막으며 /그대의 손바닥은 훈훈하여 /화기애애한 사랑이 /충실하고도 풍만하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며, 데리고 간다 /잃어버린 개구쟁이처럼 //그대의 이름
 은 아내라 부른다 /피안의 부인이여 /그대의 이름은 어머니라 부른다 /충분한
 희열을 설계한 것이 그대의 /본능인데, 그대들은 /평안의 밤마다 /평안의 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대는 이미 잃어버렸다. 더 이상 잃지 마라 /
 그는 그대의 것, 그가 필요해도 /이밤 온나무에 가득한 /평안 -- (莫邪²⁾, 「彼
 岸的婦人」 전문, 1969년 12월 지음, 1970년 12월 수정³⁾)

1) 陳賢茂, 「新加坡華文詩壇的歷史回顧」, 같은 책, 348쪽.
 2) 원명은 楊蒼, 싱가포르에서 출생하였고, 潮州人이다. 南洋大學 중문과를 졸업하였고, 남양대학 華語研究中心과 聯合早報에서 재직하였다. 후에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가난한 생활을 추구할 것을 실험하며, 정의로운 사회활동 행렬에 투신하여 캄푸치아, 태국, 중동 지역 등에서 고아들을 위해 남은 여생을 양심적인 일에 바쳤다. 법정연령이 되지 않았어도 기쁘게 퇴직한 후 남반구 전원의 한 모퉁이에 은둔하여 세상을 조용히 관조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정의로운 일과 선행을 겸하였다. 10여세 글을 쓰기 시작하여 필명으로 莫邪와 萬千 등이 있다. 시로써 세상에 이름을 알리며 초기의 작품들은 『싱가포르 15인 시집』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최근 시집으로 『莫邪의相思樹』가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산문집들이 있다.
 3) 彼岸的婦人 /你的名字叫妻子 /你的眼睛 /飽含水份, 洗淨 /他雙手血腥 /以你恬美的舌潤潤的唇 /吻去他深重的 /深重的 /喚他回家, 喚他 /回遙遠的家. 不要 /不要再製造血的 /悲劇 //你的名字叫母親 /彼岸的婦人 /阻止你所愛的去殺死 /別個母親的所愛 /你的手掌暖洋洋 /足以充實而且豐滿 /一家融融的愛 /所以帶他走, 帶他走 /像一個迷失的頑童 //你的名字叫妻子 /彼岸的婦人 /你的名字叫母親 /設計充足的喜悅是你的 /本能, 你們應該擁有 /每一個平安夜 /很多個平安夜 /你已失去. 別再失去 /他屬於你, 要他也屬於 /此夜漫樹觸目的 /平安” -- 莫邪, 「彼岸的婦人」 전문

이 시는 '피안의 부인'을 통해 莫邪의 여성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시다. 그녀는 「那小孩」에서는 불쌍한 어린 아이를 노래하였고, 「童年」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노래하며 도시 사막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이 시 역시 도시적 일상 공간 속에서 한 중년 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마치 시인 자신의 자화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피안의 부인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며 평안한 밤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시 속에서 시인의 여성의식은 자신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존재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이중적 신분의 동일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싱가포르의 화문 시가의 전개와 발전을 살펴본 바, 싱가포르 시단은 중국의 5·4 신문학의 영향 아래 출발하였으며, 일제에 저항하는 항진시기를 거치며 50년대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젊은 시인들이 등장하여 점차 본토의식을 강조하는 시단으로 발전하였으며, 대만 현대시의 영향 아래 사실과 현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싱가포르의 화문 시가는 중국문학의 모체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구의 현대시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싱가포르 시단을 형성하여 나갔다고 할 수 있다.

3. 향수의식과 유랑의식

싱가포르의 화문 시문학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동남부에서 이주한 작가들과 대만이나 홍콩에서 수학하며 이주한 작가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작가들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싱가포르의 시문학은 대체적으로 중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싱가포르의 본토문학을 창조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이고 문화적 구성물,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 상상과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족' 상상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란 영토의 외부인 제3의 지역 국가인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 화교,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가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 앞에서 싱가포르의 화인 시문학 역시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이미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의 정의를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¹⁾라고 지적한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 또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로서 역사적이고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민족주의는 점차 동남아의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나가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중화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의 중요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미 중국 화교들은 자신들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중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중국 화교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리관유(李光耀)²⁾라는 국가의 지도자의 출현,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유교자본주의의 신화

1)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서울:나남출판, 2002, 25쪽.

2) 싱가포르에서 리관유(李光耀, 1923~)가 성공할 수 있었던 있었던 요인으로 첫째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진정성, 둘째는 국가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에게서도 거리낌 없이 배우는 실용주의 정신, 셋째는 안

속에서 중국 화인들의 중요한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싱가포르 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적 체계를 통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써나가며 한 가족과 종족, 민족,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혼재되고,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 그리고 언어라는 특징을 함께 아우르며 문화적 혼종성과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문화적 혼종성과 다양성 속에서 화인들의 시문학 역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란 바로 중국 화교로서 중국 영토와 중국문화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또한 여권에조차 종족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디아스포라적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싱가포르 국민으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화인 시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화인으로서의 이동하는 사유를 보여주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중국인 또는 싱가포르인으로서의 내면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들의 내면심리에는 영국의 식민통치 속에서 과거 식민 통치에 대한 기억과 선택을 통하여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종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중국인으로서의 종족성을 유지하는 한편, 서구적 정치체제의 실험장으로써 아시아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과 서구인, 자기(우리)와 타자(그들)를 끊임없이 구분해 가며 “자기 민족이나 종족의 혈통적 순수성과 도덕적 우월성, 그리고 권력의 정당성을 절대화하는 신화적 허구성을 성찰하고 동시에 그들이 나(우리)를 타자화하는 폭력”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중국 화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시문학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適民²⁾의 「三十八年」이란 한 편의 시를 살펴보자.

“지구를 한바퀴 빙 돌아도 /이틀이면 되는 길 /해협을 건너자고 /장장 삼십팔년이 걸렸네 //사람들마다 두 개의 삼십팔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진대 /어떤 사람들은 반생의 시간이 걸려서야 /해협이란 천연요새를 뛰어넘었네……//해협 물은 /깊은가? 얕은가? /얼굴의 눈물은 /쏟는가? 달다 /삼십팔년이 /긴가? 짧은가? /눈앞의 일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집을 떠날 때는 /청춘 소년였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생애가 얼마남지 않았네 //하지만 더이상 삼십팔년을 /기다릴 필요 없기를 바라며 /양안이 손을 맞잡고 /해협이 환한 얼굴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네”³⁾ -- (適民, 「三十八年」 전문)

이 시는 중국 대륙과 대만의 양안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로, 평화로운 양안관계를 희망

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변화와 진보를 선택하는 모험 정신, 넷째는 한번 세원 원칙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지켜냈다는 점, 다섯째는 능력주의와 업적주의 등으로 꼽고 있다. 김성진 저, 『리관유-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건설을 위해』, 서울:살림, 2007, 8-9쪽.

- 1) 김광영 외 지음, 『종족과 민족』, 서울:아카넷, 2005, 9쪽.
- 2) 適民은 원명이 黃盛發이며, 祖籍은 廣東 潮安이며, 1941생이다. 1966년 싱가포르 남양대학 중문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파리대학을 유학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熱帶出版社 사장을 역임하였다. 『熱帶文藝』 『海峽詩刊』 등을 주편하였으며, 시집으로 『贊雪中炭』 『青山永不老』 등이 있다.
- 3) “繞地一周 /只需兩天 /跨越海峽 /却要整整三十八年 //不是人人 /都能有兩個三十八年 /多少人用了半生的時間 /才跨過海峽這道天險…… //海峽的水 /是深? 是淺? /臉上的淚 /是苦? 是甜 //三十八年 /是長? 是短? /眼前的事 /是真? 是膺? //離家的時候 /還是青春少年 /回家的時候 /已是風燭殘年 //但愿不必再等 /三十八年 /兩岸才能攜手 /海峽才現歡顏” 柳易冰 選編, 『鄉愁—臺灣與海外華人抒情詩選』, 河北人民出版社, 1990, 412-413쪽.

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안을 ‘38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해협’을 건널 수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반평생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야 대륙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해협은 하나의 천연요새에 가까웠고 해협의 물은 깊은지 얕은지 모르고, 얼굴의 눈물 역시 쓴지 단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서서히 양안관계가 풀어지고 있음을 시인은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의식 속에서 “집을 떠날 때는 /청춘 소년였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생애가 얼마남지 않았네”라며 청춘의 소년이 이미 만년의 나이가 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화상 속에서 중국 밖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시인들이 ‘나그네’ 의식을 갖게 된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나의 그리움은 /눈꽃처럼 그대의 두 어깨에 뿌리며 /그대는 길을 가는 나그네 /별빛에도 눈꽃에도 아랑곳없이 //삼천리 밖에서 그대를 생각하며 /엄동을 마주하며 /그리움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애정은 얼음 기둥처럼 얼어버렸다 //이곳에는 겨울이 없을지라도 /어젯밤 꿈이 끊어졌을 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는 것도 익숙지 않고 /새벽 추위도 견디지 못하겠구나 //빗소리는 창문을 두드리고 새벽 추위가 엄습하는데 /그대는 삼천리 밖에서 / 아득한 곳에 있는 듯 /그날 밤 함께 춤출 때 /선율이 깊은 적막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 것을 기억한다”¹⁾--(淡瑩, 「過客」,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문)

이 시는 싱가포르의 저명한 여성 시인인 淡瑩²⁾의 「過客」이란 시로, 싱가포르 화인들의 의식세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시 역시 시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을 때 쓴 시로 말레이시아 출생으로 대만에서 유학하며 미국을 경험한 廣東 梅縣 출신으로 중국 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화인들의 의식세계에는 무엇보다도 ‘나그네’처럼 세계를 유랑하고 있다는 것과 항상 떠날 때와 돌아갈 때, 떠난 곳과 돌아갈 곳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삼천리 밖, 12월의 엄동설한 속에서 길을 가는 나그네가 되어 그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식이 바로 화인 시인들의 유랑의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리움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애정은 얼음 기둥처럼 얼어버렸다”라며 그리움과 애정이 모두 쇠잔해가는 유랑자의 비애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도 새벽 추위에도 놀랄 수밖에 없고 꿈마저 끊어지는 먼 곳에 처해 있다는 시공간의 ‘거리감’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서 시인의 의식의 심연에는 항상 먼 아득한 곳에 있지만 언제나 시인의 기억 속에는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각인되어 있다. 시인은 “그대는 삼천리 밖에서 / 아득한 곳에 있는 듯 /그날 밤 함께 춤출 때 /선율이 깊은 적막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 것을 기억한다”며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 세계를 추억하며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이어주고 있다.

1) “十二月 /我的懷念 /像雪花灑在你雙肩上 /你是趕路的過客 /漠視星光 漠視雪花 //想你在三千里外 /對着一季嚴寒 /讓相思凋零如秋葉 /愛情凝成冰柱 //此處雖無冬 /昨夜夢斷時 /仍不慣聽雨打紗窓 /仍不耐五更寒 /雨打紗窓五更寒 /你猶在三千里外 / 猶在渺茫處 /我却記取那夜共舞時 /旋律把我卷入深深的寂寞裏” 淡瑩 著, 『太極詩譜 淡瑩詩集』, 싱가포르:教育出版社, 1979, 123-124쪽

2) 淡瑩은 원명이 劉寶珍이며, 廣東 梅縣 사람이다. 1943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으며, 대만대학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王潤華와 함께 『星座詩刊』 『創世記』 동인을 창립하였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 화어연구중심에서 강사를 맡고 있다. 『五月詩刊』 창시인의 한 사람이며, 시집으로 『千萬遍陽關』 『單人道』 『太極詩譜』 『淡瑩文集』 등이 있다.

淡瑩의 또다른 시 「命運」이란 시를 살펴보자. 이 시는 과거, 현재, 미래 등 세 가지의 시간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 변화를 통하여 여성적 자아의 심리적 이미지를 표현해 주고 있다.

1. 과거

나의 얼굴은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보리수로 /한무더기 피어난다 //나무 아래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때리는데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깊은 산의 북소리 같음을 /들었을 것이다 /자신의 얼굴이 /거울 속의 꽃같다고 /비취 보았을 것이다 //나무 위에 날아가는 것들은 /봉황처럼 화염 속에서 /흔들거리며 떠오르는 것을 /전율했고 /날개짓했을 것이다

2. 현재

옛사당의 무너진 담장이 /한층한층 떨어져 내리는데 /마지막 남은 /내 마르고 수척한 얼굴 //나의 얼굴은 /불꽃에 물든 후 /포말처럼 /민겨지지 않는다 //짜고 뚫음을 바닷물에 돌려주며 / 차갑고 준엄함은 바위에 돌려주고 / 어둠을 검은 밤에 돌려주지만 /놀라 두근거리는 답안은 /저 별무리에서 /결국 찾아낼 수 없다 //손을 흔들며 /나는 자신의 얼굴을 /하늘로 던지자 /새소리가 /가물가물 쪼아댄다

3. 미래

삼월이 반드시 봄은 아니다 /봄이라고 반드시 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 /꽃이 핀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달콤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나는 시초점으로 /운명을 점치니 /손금이 갑자기 두 손에서 /날아간다 /그날 저녁 /나는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며 /11시에 등불을 끄며 잠자리에 든다 -- (淡瑩, 「命運」, 전문)¹⁾

1장 과거에서는 ‘나의 얼굴’은 ‘보리수’로 피어나고, ‘거울 속의 꽃’이나 ‘봉황’ 같은 이미지로 전율하고 날개짓하는 비교적 활기차고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2장 현재에서는 ‘옛 사당의 무너진 담장’이나 바닷물의 ‘포말’처럼 ‘어두운 검은 밤’이란 시적 인식 속에서 별무리도 찾아낼 수 없고 새소리만 가물가물 하늘을 쪼아대고 있는 비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3장에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 인식이 다시 시간의 변화 속에서 삼월의 봄을 맞아 꽃과 열매를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점을 치면서 잠자리에 들거라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과정을 통해 여성적 자아의 생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의 단계를 거쳐 우주와 인생에 대한 깊은 관찰과 인식을 표현해 주고 있다.

淡瑩의 이러한 시세계를 통해 볼 때 싱가포르 화인들의 시의식 속에는 항상 과거에 자신이 살아온 문화적 뿌리에 시인 영감의 축수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향수의식이야말로 현재적 삶의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으며, 항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성

1) “一. 過去 //我的臉 /在手的掌上 /開出一叢一叢 /菩提樹 //凡打從樹下經過者 /必聽見 /自己的聲音 /如深山鼓 /必照見 /自己的容貌 /如鏡中花 //凡打從樹上飛過者 /必震栗 /必振翼 /如鳳凰 /自火焰中 /冉冉升起 //二. 現在//古廟的頽垣 /一層一層剝落 /最後剩下 /我清癯的臉 //我的臉 /經煙火渲染後 /是一粒泡沫那樣 /令人不可置信 //把咸澁還給海水 / 冷峻還給巖石 / 幽冥還給黑夜 /而驚悸的答案 /在那組星座 /終究搜索不出來 //一揚手 /我把自己的臉 /拋向天空 /讓鳥聲 /啄個稀爛 //三. 未來 //三月不一定是春天 /春天不一定開花 /開花不一定結果 /結果不一定甘話 //所以日曜日 /我以一束蒼草 /占卦命運 /掌紋驀然自雙手 /飛出 /當天晚上 /我仍是十點半上床 /十一點正熄燈就寢” 淡瑩 著, 『淡瑩文集』, 廈門:鷺江出版社, 1995, 48-50쪽

찰하는 깊은 현실 인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싱가포르(인)의 본토성과 자기정체성

싱가포르 화인 시문학은 위에서 본 것처럼 우선적인 특징이 ‘중국’의 외부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는 작자의 심사와 함께 중국의 바깥을 유랑하며 화인으로서의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유랑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 화문시가에서는 싱가포르의 토착문화와의 상호 융합과 동화적 삶을 살아가며 현지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싱가포르 화인 사회의 종족관계와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화교 1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삶에서 점차 벗어나며 중국과의 유대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점차 현지에 동화되어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화인들의 시문학 속에는 자연적으로 문화의 잡종성 내지 혼종성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주변부 의식에서 점차적으로 주체적인 의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 화인 시인의 대표적인 本土性 작가로 王潤華(1941~)¹⁾를 들 수 있다. 이른바 본토성이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의 본토성”으로, “영역의 의미로서의 본토이자, 중국본토(대만을 포함하여)를 조금도 겨냥하지 않는 본토”²⁾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토성의 의미에는 중국문학의 전통 영향에서 점차 벗어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王潤華는 싱가포르 화문문학사의 정리와 書寫를 중시하며, 『從新華文文學到世界文學』라는 책에서 싱가포르 화문문학의 발전사실을 탐구하며 그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외래의 씨앗(중국문학을 가리킴)이 이국의 땅에 과중되어, 모든 씨앗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땅과 기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당시의 사회 요소는 화문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싱가포르 국가의 성장의 일환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화문문학이 발전하는 정확한 방향과 그 정신적 내함을 더욱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³⁾고 하였다.

“나는 새벽 안개를 뚫고 /아이오아 시립공원의 참나무숲을 달린다 /다람쥐가
두 손으로 마지막 도토리를 받쳐들고 /뒷다리로 깡충 서서 /슬프게 나뭇가지를
바라본다 /어제 숲을 뚫고 지나가는 한류는 /불꽃 없는 큰불이다 /나뭇잎이 모
두 불타버리고 /찬서리가 불의 씨앗처럼 /작은 나무 덩굴 속의 蘇麥樹를 /활활
불태운다”⁴⁾ -- (王潤華, 「橡樹林」, 1970년 10월, 전문)

“아침 10시 /습한 야자나무 그림자가 / 산만하게 숙근초 풀더미에 누워 /들

- 1) 王潤華는 廣東 사람으로, 1941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다. 대만정치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 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寫作人協會 회장을 맡고 있다. 시집으로 『患病的太陽』 『高潮』 『內外集』 『橡膠樹』 『王潤華文集』 등이 있으며, 詩文合詩로 『南洋鄉土集』과 산문, 학술논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2) 南治國, 「新馬華文文學的本土性建構-以王潤華的相關論述爲中心」, 『華文文學』, 總第66期, 2005.1, 23쪽.
- 3) 王潤華, 『從新華文文學到世界文學』, 潮州八邑會館, 1994, 南治國, 같은 논문, 24쪽 재인용.
- 4) “我穿過晨霧 /跑上愛荷華市立公園的橡樹林 /松鼠雙手捧着最後一顆橡實 /用後腿高高地站起來 /傷心地仰望着樹梢 /昨天穿過樹林的寒流 /是一把沒有火焰的大火 /把樹葉都燒焦了 /寒霜像火種 /熊熊地燃燒着 /矮樹叢中的蘇麥樹” 柳易冰 選編, 같은 책, 414쪽

새들은 햇빛을 깨끗이 쪼아먹고 /지지배배 /우연히 나무 그늘 아래 토해내는 /
여행객들의 헛소문들을 빼앗아 쪼아 먹는다”--(王潤華, 「山雀」전문)

위의 두 편의 시는 王潤華의 시풍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이다. 첫 번째 시 「橡樹林」은 미국의 아이오하 시립공간에서 새벽에 참나무숲을 달리며 다람쥐가 마지막 도토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외국을 유랑하고 있는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시풍이 대체적으로 서정적이며 자연의 변화 속에서의 삶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람쥐가 마지막 도토리를 들고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절망적 상황과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 찬서리가 불의 씨앗처럼 내리자마자 거꾸로 덩불 속의 蘇麥樹는 점점 생명의 불씨를 활활 불태운다는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의 시 「山雀」는 ‘산새’를 상징물로 하여 야자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여행객들이 뺨는 헛소문들을 쪼아 먹고 있는 자연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사실상 자유로이 비상하는 자유의 날개를 가진 새가 누리는 자연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 가운데 시인을 산새에 비유하며 자유를 향한 시인의 시적 열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풍경을 노래한 시들을 통해 더 이상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정체성보다는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해 가고 있는 본토성 문학을 찾아볼 수 있다.

“고무나무는 가장 더운 것을 두려워하고 / 고무나무는 가장 수줍어 하지 않는다 /새해부터 /겉옷과 속바지를 /하나하나 깨끗이 벗으며 /산비탈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성적 매력을 주지 못하는 몸을 드러낸다 //옷을 입지 않은 고무나무는 /매 한 그루마다 마른 뼈가 우뚝 솟아 있고 /몸에는 칼의 흔적이 겹겹이 나 있는데 /나는 그것이 바라는 바를 알고 있다 /빗물이 열대숲으로 돌아와 /그것을 대신해 녹색의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것을 대신해 열은 황색의 작은꽃을 피우기를……”¹⁾ -- (王潤華, 「橡膠樹」, 1970년 10월, 전문)

그리고 위의 「橡膠樹」는 王潤華의 대표 시집의 제목이자 한 편의 대표시이다. 이 시의 제재를 보듯 ‘고무나무’는 싱가포르의 열대기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南洋의 자연풍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제재를 가지고 새해의 산비탈에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몸을 드러내고 칼자국이란 상처를 안고 다시 생명의 녹색 옷을 입고 작은 꽃을 피우기를 시인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고무나무’는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시인의 열망과 감수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王潤華는 이러한 시를 통해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화인으로서의 독자적인 본토성을 지닌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것이다.

5. 나오며

이상으로 싱가포르 화문시가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통하여 싱가포르 화문시가의 문

1) “橡膠樹最怕熱 /橡膠樹最不害羞 /從新年開始 /就把外衣內褲 /一件一件脫個精光 /一絲不挂地站在山坡上 /赤裸着并不性感的身體 //沒穿衣裳的橡膠樹 /每一棵都是瘦骨嶙嶙 /而且身上刀痕累累 /我知道它正在盼望 /雨水回來熱帶叢林 /替它換上綠色的新衣裳 /替它戴上淡黃色的小花……” 王潤華 著, 『王潤華文集』, 廈門:鷺江出版社, 1995, 38쪽.

화적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화문문학 또는 화인문학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중국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중국문학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며 주변부 의식에서 독자적인 주체의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중국 화인들의 삶과 의식의 문제를 고찰하며 다종족, 다문화적 싱가포르 사회 속에서의 중국인 화인에서 싱가포르인으로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 화인 작가들에게 있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란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를 쓰는 주체에 관한 문제이자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시적 대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중국문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싱가포르 본토문화와 토착문화 속에서 싱가포르인들이 어떻게 주체적인 의식을 획득해 나가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싱가포르 화인문학 또는 화문문학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화문문학 전반에 걸쳐 충분한 연구와 관심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동남아라는 제3의 공간에서의 중국 화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書海出版社, 1993
- 公仲 編著, 『世界華文文學概要』,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0
- 김광익 외 지음, 『종족과 민족』, 서울:아카넷, 2005
- 김성건 지음, 『싱가포르의 사회와 문화』, 문경출판사, 1997
- 김성진 저, 『리관유-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건설을 위해』, 서울:살림, 2007
- 南治國, 「新馬華文文學의本土性建構-以王潤華의相關論述爲中心」, 『華文文學』, 總第66期, 2005.1
- 淡瑩 著, 『淡瑩文集』, 廈門:鷺江出版社, 1995
- 淡瑩 著, 『太極詩譜-淡瑩詩集』, 싱가포르:教育出版社, 1979
- 柳易冰 選編, 『鄉愁-臺灣與海外華人抒情詩選』, 河北人民出版社, 1990
- 박사명 외 저,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진통과 현대, 2000
- 柏楊 主編, 『新加坡共和國華文文學選集』(史料篇), 臺北: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2
- 柏楊 主編, 『新加坡共和國華文文學選集』(詩歌篇), 臺北: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2
-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서울:나남출판, 2002
- 小莫, 「華文詩歌의概念與特性」, 『詩刊』, 1997 1기
- 왕경우 저, 윤필준 역, 『중국 밖의 또 다른 중국인 화교』, 다락원, 2003
- 王潤華 著, 『王潤華文集』, 廈門:鷺江出版社, 1995
- 姚堯, 『當代華文詩歌의一種發展趨向』, 『詩刊』, 1998 6기
- 原甸 著, 『馬華新詩史初稿(1920-1965)』, 홍콩:三聯書店香港分店, 1987
- 이용주 김덕영 저, 『신화가 되어버린 싱가포르』, 한국학술정보(주), 2005
- 지세화, 「중국의 ‘華文文學’에 대한 연구동향과 인식태도 고찰-화문문학 연구성과의 검토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제46집, 2008.12
- 陳賢茂, 「新加坡華文詩壇의歷史回顧」, 『臺灣香港與海外華文文學論文選』, 福州:海峽文藝出版社,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of Chinese poetry literature in Singapore

Park, Nam-Yong

This is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of Chinese poetry literature in Singapore. Through Singapore's major writers and works, can be found in their works's cultural identity, For example, wandering consciousness and homesickness consciousness etc. Also through this study, we can know the national identity of Singapore natives. Thus futher reserch needs to be done to overcome today's Chinese literature study and limitations.

Key words

Singapore, Chinese poetry literature, cultural identity, homesickness, national identity

주제어 : 싱가포르, 화문시가, 문화적 정체성, 향수, 민족적 정체성